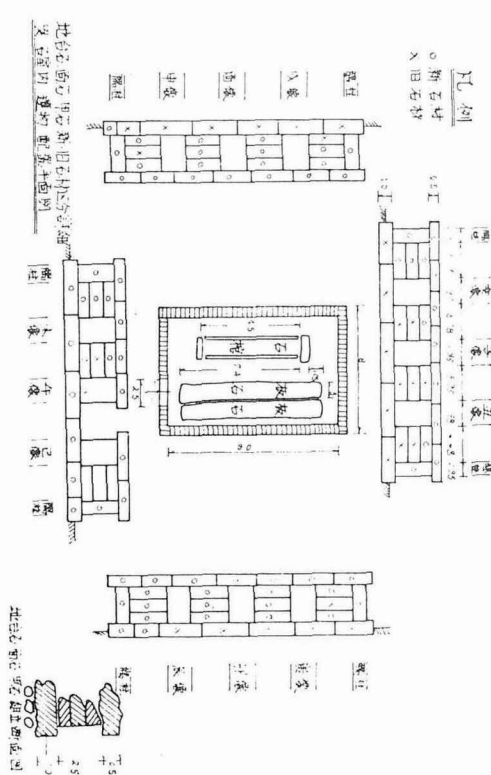


九政里方形墳 復原工事經緯

孫 龍 文

一九六四年十一月中旬부터 着工 鄭明鎬氏가 監督官으로 任命되어 慶州市教育廳 直營으로 實測 및 調査作業에 이어 組立工事に 앞서 많은 部材의 新規治石을 끝내고 新年 一月 十八日로 一時中斷되었다. 其後 一九六五年 八月二十日 組立作業을 繼續하게 되어 本人이 參與하여 九月四日로서 完工을 보게 되었다. 補修前 概況은 長久한 時日로 四方石材(甲石、面石、護石、地臺石)가 倒壞 放置되었던 關係로 封土層이 落土가 되어 頂上中心部의 大部分의 天井石이 露出되어 降雨期에는 漏水가 甚한 形便이었다. 그리고 南便의 地臺石은 全部없고 東·西·北便만이 地表에 殘存하고 있었으며 前般 工事時에 舊石材로 남아있던 것은 面石의 拾壹個와 甲石의 貳枚뿐이었다. 그러나 多幸히도 十二支의 護石만은 土中에서 찾았으나 其中 未像의 面部는 破損을 甚히 입었다. 그리하여 現場 周邊에서 收集된 部材만으로서는 復原이 不可能하여 面石 四四個와 隅柱石 四個와 甲石 二十八個와 南便地臺石 六個를 新規로 만들기로 하고 治石作業을 進行했으나 加工後 尺數와 手法의 粗雜等 여러가지 理由로 甚한 隘路를 겪어가며 治石作業까지 끝내고 一次工事を 끝마쳤다. 一九六五年 八月二十日 組立工事が 繼續되어 治石된 部材의 檢尺을 하여 組立作業에 着手하였다. 當時 가장 基調가 될 수 있는 部分이라고 推斷되는 北便부터 地臺石의 設置整備를 始作하여 東便·西便이라는 順序로 八月二十三일까지 끝내고 南便地臺石의 取設을 남긴채 八月二十四日 부터는 護石의 定位位置運搬과 北便 面石組立에 着手하여 當日로서 끝냈다. 八月二十五일부터 二十八일까지 東便과 西便의 面石을 組立하였고 이어서 南便地臺石의 設置(前面全部新石材)를 하는 一方 未加工된 隅柱石을 治石하고 또 將次 組立이 完了되어 封土層造成時 土壓에 依해 突出變位될 憂慮가 多分히 있으므로 隅柱石 頂上部에 구멍을 뚫어 꺾이로서 補強하



었다. 八月三十일부터는 南便 面石의 組立을 하는 한편 石室內 遺物의 簡單 整理도 同時에 하였고 石室入口 前面은 (巳像과 午像사이) 扉道와 運結하는 通路로서 從前과 같이 開放하는 形式을 갖추기로 現地에 來訪한 黃壽永氏와 決定을 보았고 이部分에 남은 面石參個를 東便에 充當使用하여 不足面石을 補充하였으나 기리가 二寸可量 짧아서 洋灰로서 補充工 하였다. 八月三十一日로서 南便 面石과 石室入口 整理가 끝나고 九月一日부터는 露出排水路新設을 하는 一方 甲石의 設置를 始作하였는데 治石된 各個 面石의 높이와 護石의 높이와 若干의 差異가 생겨 苦衷이 있었으며 더우기 甲石自體의 自重이 가법고 거리도 짧았고 幅이 좁아서 後日 盛土를 하면 土壓으로 波狀屈曲의 憂慮가 있어 甲石의 이름과 甲石下端과 面石上端의 接着되는 部分의 空隙에는 不得已 몰탈로서 補強策을 試圖하였다. 九月二日로서 甲石의 取設이 끝이 나고 九月三日부터는 盛土作業 및 周邊地作業과 莎草作業을 始作 九月五日로서 完了 그리고 盛土作業時 面石部位와 甲石部位의 變位突出을 막고자 새끼로서 補強을 하고 天井部 石材露出部分은 粘土로서 細心히 다짐하고 最終으로 洗滌作業

을 하였다.

考古美術 卅一

◎ 文化財委第一分委(十六次)

十一月八日 午後二時 開催 金庠基 金斗鍾 李弘植 黃壽永 金元龍委員出席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補修關係

- 1、昌寧述亭里 東三層石塔……空地 및 草家 購入하여 環境整理하며 石塔도 解體修理한다(金允基委員 監督)
 - 2、道岬寺 如來坐像 法堂補修……可決(工事中 石佛包裝할 것)
 - 3、觀龍寺大雄殿 丹青工事……原因案을 찾아서 施行할(但內部는 除外)
 - 4、慶州 獐項里寺址 整理工事……顛落된 東塔材를 寺址위에 復舊하며 佛座石中心으로 寺址整理하고 寺址에 이르는 約六十m의 道路擴張하며 實測撮影할(寺址整理만은 黃委員이 指導할)
 - 5、廣州春宮里 五層 및 三層塔……豫算可能하면 兩塔 同時施工키로 할
- 二、其他事項

- 鎮南館補修에 따르는 輿論……地方의 一部意見이 용마루가 낮아졌다는 것 인바 監督官 意見이 正當하므로 이를 通知할
 - 南美 알렌티나國 東洋美術館에 우리美術品 出品件……原則贊成이나 그規模를 알아내야 하며 二流級品以下로 交換 또는 貸與할 수 있음
 - 宗廟內에 民族文化센터 設置計劃에 대한 委員會로서 反對建議를 長官에 提出할(金庠基 李弘植委員 超起할)
 - 法住寺出張報告(金允基)
 - 雞林의 木根部附土에 따르는 影響檢討를 專門家에게 의뢰할 것(黃壽永)
- (會議 終了後 舊在日金銅佛像三軀에 대한 韓鍾建氏의 舊藏事由說明이 있었다)
- ◎ 文化財委第一分委(十七次)

十二月三日 開催 金庠基 金允基 李相佰 李弘植 金元龍委員 金周泰專門委員 河

甲清局長 任奉植課長以下 關係官出席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 慶州孝子孫時揚碑 移建……可決
- 美國 國際公園 遺物寄贈件……中興山城 雙獅石燈을 模造出品한다.
- 五臺山史庫址原形變更……原案대로 可決
- 密陽 嶺南樓敷地內忠魂塔建立件……否決
- 仁川市所在陶窯址發掘……許可(仁川市長 申請 國博美術課指導)
- 河東雙溪寺浮屠補修……可決(專門委員中에서 監督委員)
- 宗廟內民族文化센터 建立案에 대하여 文化財委로서 大統領에 建議키로 함
- 石窟庵 石燈 無斷設置에 對하여 調査 撤去指示함
- 奉化發見 半圓形石像 保存에 대하여 黃壽永委員의 報告를 듣고 次回再議키로 함

○ 法住寺石造物竣工、同磨崖坐像(寶物 二二六號)의 保護閣은 撤去도록한다(金允基委員)

○ 昌寧 觀龍寺 大雄殿工事報告 丹青施工하고 浮屠는 地方費로 整理한다(金允基委員)

○ 昌寧邑도친리 三層石塔材를 調査指定한다.

◎ 襄陽 陳田寺址 石塔과 浮屠調査

今年初 同人鄭永鎬氏에 의하여 報告된 同石塔에 대한 調査次 黃壽永 申榮勳兩氏는 十一月二十二日 襄陽 降峴面 屯田里에 出張하였던바 다시 이 石塔에서 멀지 않은 小丘(佛頭頂)위에서 二層方形基壇위의 八角浮屠의 破材를 發見하였는바(復原可能 部材完存) 이 같은 形式은 初有의 것으로 보인다. 이塔에 대한 鄭永鎬 申榮勳 李鍾碩 三氏의 再調(十二月九日) 時에는「陳田」陽刻石書平瓦片이라는 銘瓦片이 發見되었다. 이들은 時急한 保存對策이 있어야 한다.

◎ 襄陽 禪林院址 石造建物復元工事

江原道 襄陽郡 西面 米川谷에 있는 禪林院址는 羅末의 經營으로서 一九四八年 貞元二十年 銘 梵鐘이出土된바 있었다. 이곳에는 同代의 三層石塔 八角石燈 弘覺禪師塔碑의 龜趺螭首 同八角浮屠들의 石材가 寺域에 散亂되어 왔으며 昨年에는 石塔등에 대한 搬出企圖와 遺物盜掘이 있어 今春 鄭永鎬氏의 現場調査로서 石物에 대한 假指定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 整理復元을 위한 當局의 豫算令達에 따라 十一月二十一日 黃壽永 申榮勳 兩氏의 現地調査와 工事着